

종교에 관계없이 감염인 누구나 될 수 있는 곳

클_원 안 드 레 아 · 인천심터 대표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많은 시간을 기도했고, 망설임이 있었음을 이야기 해야겠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느님의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한 일들을 더 크게 드러내고 싶은 부추김을 유혹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 인천심터를 통해서 가난한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티끌만큼이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은총이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하지만 편을 들어 소개의 글을 쓰기로 했다.

감염인들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

인천심터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영성에 의해,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때문에 드높여진 비천한 이들이, 최소한의 가진 것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너희는 내가 굶주려 있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 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심터는 위의 성경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 남성들이, 오늘 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안에 숨어계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남자수도회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공동운

영하고 있다.

수십 세기를 살아 온 인류의 역사 안에는 무수히 많은 가난한 이들이 소외당하고 배척받으며 멸시와 죽음에 방치된 채로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다. 나의 길지 않은 수도 생활에서 체험한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거룩함”이란 단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것은, 그분들 안에 하느님의 신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분들은, 우리의 알량한 값싼 동정이나 자선을 원치 않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사랑과 관심, 다정과 친절을 바라고 있다.

간혹, 우리들 중에는 고자세를 취한 채 여분의 것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사랑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되찾는 곳

인천심터는 부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 실현의 장소가 되었음 하고 바라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모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겸손의 덕으로 나아가는데 부담을 덜어줄 것 같다. 다만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며 협력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난한 아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란다.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모든 것에 정성과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곳을 떠나는 날,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되찾고, 자립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인천십터는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고, 너무 잘 알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과과의 인치를 위해,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라고 끊임없는 기도로 사는 곳을 보여드리는 곳이다.

또한 특별한 이름을 갖기를 원치 않는 것도, 하느님의 사임으로 되기를 바라기 때분이고, 가난한 분들이면, :들이 종교의 유무, 차별과 부담 없이 머물다가도복하기 위한 곳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시설도 없고, 특별히 지리적으로 서울(병원진료 문제)과 멀어서 불편한 교통 등 취약점이 있다. 방문 휴게실을 포함하여 6개 있는

며, 직접 인원은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위에는 산책 공원이 있고, 서해 바다와 쉬들 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용 시 편한 점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길**

이상으로 소개의 글을 마치면서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이 삶을 동등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기록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종교와 빈부의 차이, 질병의 유무를 떠나서, 모두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판단하지 말며, 하느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겸손의 덕으로 나아가는데 부담을 덜어줄 것 같다. 다만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며 협력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 같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난한 아들과 동일시 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란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6:45)

인천십터는 하느님의 사랑에 목 말리시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작은 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왼쪽부터 감염인의 방, 침터 마당, 침터 거실, 감염인의 휴식공간

※ 순터주소 문의 0212675-4111